

“차별금지법 통과 시, 여성들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가”

바른인권여성연합, ‘숨겨진 여성 역차별’ 주제 포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심각한 피해 외국 사례로 명백히 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 포럼이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을 정선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를 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을 김지연 영남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축사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손가락 하나까지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차별화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등하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법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이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예민한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런데 오늘 와 보니 여성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성 전용 화장실을 남성에서 성전환한 여성이 드나든다거나, 여성 운동 종목에 성전환한 여성이 참가해 우승을 석권하는 등의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달라. 결론이 나오면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진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비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려는데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서 의원은 “시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못지 않게 여성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중인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요소가 수없이 나타나, 법률 제정을 후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래 20대까지 총 6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4회, 철회 2회로 모두 폐기될 정도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법안”이라며 “이미 나이와 성별, 언어, 피부색 등에 대한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부족할 경우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향간의 염려대로 그 저의만 의심받을 뿐”이라고 전했다.

언어적 차별 금지, 여성들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

포럼에서 발표한 정선미 변호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충분히 제정돼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면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자유보다 과도하게 우선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의 축소와 제한, 억압을 야기한다. 따라서 차별을 절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모든 사인에 대한 대사인적 효력으로 전면 확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었던 평등권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까지 확대해 보장할 경우, 타 기본권과의 상호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사인에 대한 평등권 주장은 윤리·공공질서와 더불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정당행위 이론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반드시 제한되어야

▲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 포럼이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는 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다”며 “괴롭히는 말, 희롱하는 말, 위협하는 말에 더해 불쾌감을 주는 말, 환대하지 않는 표현까지 포함되고, 적대적·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가 전역된 남성 하사가 있었다. 만약 그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했다면, 실제 군대 내 생활을 모두 같이 해야 하는데 여군들은 역차별을 받았을 것”이라며 “최근 성전환자의 숙명여대 입학 논란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숙명여대생들이 게시판에 반대의 글을 남겼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여대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을 구비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여성 불평등과 성범죄 증가를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해 역차별로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며 “정의당안은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자 화장실과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것도 혐오이자 차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실 전쟁’을 소개하면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평등권 조례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을 반대 성별로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이 이성(異性)의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조례폐지 청구소송으로 이어져 주민투표 결과 폐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숙고 끝에 결정했다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탐색 중인 경우도 있고, 수 차례 반복도 가능하다”며 “성범죄 고의의 가진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 물증이 없는 한 처벌이 어렵다. 그렇다고 전국 모든 화장실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영국 (...3 페이지에서 계속)



▲ 정선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자유보다 과도하게 우선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의 축소와 제한, 억압을 야기한다. 따라서 차별을 절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김재욱 | 교육,선교 담당: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인애, 양욱 담당 목사: 오상학

주 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기도	저녁 7시	
토요일기도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이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콩떡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콩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콩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